

# 음주운전 적발에도 승진...민낯 드러난 광주 산하기관

테크노파크·디자인진흥원 등 안전시설 미흡으로 재공사 혈세 낭비  
7개 기관 16명 직원 음주운전 비위·복지시설 납품 부정 계약 적발도

광주시 산하공공기관의 무너진 복지기강과 부적절한 업무집행이 무더기 적발됐다. 대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재차 공사를 진행해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징계는 커녕 승진했고, 사회복지시설은 사업 계약을 부적절하게 진행했다.

◇혈세 줄줄= 광주시 감사위원회(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추진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총 7건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기관은 광주시·광주테크노파크(3건)·(재)광주디자인진흥원·(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광주시 수목원·정원사업소 등이다.

테크노파크는 수소저장 설비가 설치된 충전소에서 유선상 확인만으로 규격에 미달한 방호벽을 설치했다.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사의 보완요청에 따라 규격에 맞는 방호벽으로 교체 하면서 추가 설치비로 2700여만원을 낭비했다.

또 공사도중 감액해야 할 사안을 감액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아 수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광주시도 공사 설계도가 변경 됐음에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1300여만원을 추가로 지출해 적발됐다.

다른 기관들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물가변동조정액의 정산을 소홀히 하고 특허 공법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감사에 걸렸다.

◇직원들은 음주운전=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승진·승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가 2022년부터 2024년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17곳 임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여부 및 관리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7개 기관(교통공사·환경공단·사회서비스원·글로벌광주방송·관광공사·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테크노파크) 직원 16명의 음주운전 비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통공사와 환경공단 직원 각 1명과 2명은 승진했고 다른 일부 직원들은 승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보도를 침범해 통유리창을 파손을 한 직원도 있고, 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직원까지 있었다.

위원회는 적발된 공공기관에 음주운전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 음주운전 비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임직원 행동 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으로 음주운전 실태를 점검 할것도 요구했다.

◇복지시설 계약은 마음대로= 광주시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계약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위원회는 광주시 5개 지자체의 2021년부터 2024년 까지 시설 운영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남구·북구·광산구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태만을 적발했다.

남구 사회복지시설 3건, 북구 사회복지시설 5건, 광산구 사회복지시설 4건 등 총 12건의 부적절 업무가 감사에서 확인 된 것이다.

입찰조건이 맞지 않는 업자와 식품 납품 계약을 진행하거나 규정상 일반입찰을 했어야 함에도 수의 계약을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후원금 관리도 소홀히하고 후원자 실명을 홈페이지 상에 공개해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도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진도 윤림산방 연못에 있는 배롱나무.

〈전남도 제공〉

## 산림청, 올해의 나무 진도 윤림산방 배롱나무

진도 윤림산방 배롱나무가 올해의 나무에 선정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윤림산방 배롱나무를 ‘2025 올해의 나무’로 선정했다.

산림청 올해의 나무는 보호수의 맛과 가치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 소나무, 굴솔, 왕버들 등 8종 10그루가 선정됐으며, 진도 배롱나무는 노거수 부문에서 이

름을 올렸다.

산림청은 배롱나무의 아름다운 수형,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진도 윤림산방은 조선시대 화가인 허련 선생이 말년을 보냈던 화실이다. 연못과 정원이 어우러진 진도의 대표 명승지로, 연못 인공섬에 있는 약

95년 된 배롱나무는 윤림산방 절경의 정점이다. 윤림산방 배롱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될 예정이

며, 환경개선 및 홍보를 위한 녹색자금이 최대 2500만원이 배정된다. 지금은 노거수 주변 정리, 안내판 설치, 환경개선 등 다양한 정비사업에 사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의 나무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가꿀 계기가 됐다”며 “지역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적극 발굴해 보호수로 지정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산림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장관 만나 광양만권 산업구조 전환 요청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만나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광양만권 산업구조 전환 등을 건의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 확대, 동북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수계관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현행 11.6%에서 24%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하천인 동북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총 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연구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강

조하며,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김 장관과 함께 화산 동북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적벽을 방문해 기반시설 조성 현황을 둘러보고,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 확대와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인 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 등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완섭 장관은 “전남도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팍리스 1호 기업 ‘에이직랜드’ 광주 사무소 개소

2호 에임퓨처도 다음달 개소 예정

광주시가 유치한 팍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1호 기업이 15일 광주에 사무소를 열었다.

광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에 문을 연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해 광주AI생태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세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팍리스 1호 유치기업인 ㈜에이직랜드가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 광주 사무소를 마련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종민 에이직랜드 대표이사를 비롯해 팍리스 유치기업 관계자와 지역 대학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에이직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제조판 담당하는 기업) 업체인 대만의 TSMC사의 글로벌 8개 협력사 중 국내 유일 기업이다.

또 반도체 설계-양산-패키징-검수 등 반도체 전 공정을 조정하는 팍리스 디자인하우스(반도체 팍리스와 파운드리 간 가교역할을 하는 설계지원업체)이기도 하다.

독보적인 반도체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이직랜드는 광주에 반도체연구개발(R&D) 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설계 후공정 분야 기술개발을 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